

# 추석 벌초 앞두고 벌 쏘임 사고 주의보

### 지난해 벌에 쏘여 10명 사망 8월~9월 벌 산란기 “모자 착용하고 긴 옷을 입어 사고에 대비해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의 활동이 왕성해짐에 따라 ‘벌 쏘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8월부터 9월까지 벌의 산란기라 작은 행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심한 경우 벌에 쏘여 사망할 수도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벌집제거 출동건수는 총 73만172건으로 연평균 14만6034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통계를 분석해 보면, 전체 벌집제거 건수 14만7003건 중 8월의 벌집제거 건수가 5만3978건(36.7%)으로 가장 많았으며, 9월에도 3만522건(20.5%)이 발생했다.

최근 5년 간 벌 쏘임 사고로 인해 병원을 찾은 환자 숫자는 총 7만72명으로, 이 중 여름철인 7월부터 9월에 발생한 환자가 74.5%(5만2183명)에 달했다. 8월이 1만9286명으로 벌 쏘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10명~20명 정도가 벌 쏘임 사고로 사망했다. 2017년에는 12명이, 지난해는 10명이 벌에 쏘여 숨졌다.

특히 벌은 8월부터 9월까지 산란기다. 개체 숫자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작은 행동에도 민감하게 반응, 곤장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 시기에 추석에 앞두고 산으로 벌초를 가는 사람이 많은데, 벌집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벌을 발견했을 때는 차분하게 대피해야 하며, 팔을 휘두르는 등의 큰 몸짓은 벌을 위협해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또한 벌은 검은색이나 갈색 등 어두운 색에 강한 공격성을 보이므로 벌이 많은 장소에 출입할 때는 흰색 등 밝은 계열의 색을 띤 옷을 입는 것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 특히 어두운 색상의 모자를 쓰고 갈 경우 벌들의 집중 공격을 머리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난 2016년과 2017년 말벌의 공격성향과 관련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에서 말벌은 노란색 등의 밝은 계열의 색보다 검은색이나 갈색 등 어두운색에 강한 공격성을 보였다.

아울러 향수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강한 냄새를 유발하므로 자제하고 주스나 청량음료, 과일 등 단 음식은 벌을 끌어들이 수 있으므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또 벌이 있거나 벌집이 있을만한 곳에서는 주변을 잘 살펴보고 벌집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전문가들은 만약 벌집을 건드렸다면 신속하게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벌집을 건드리면 벌들은 흥분해서 무차별 공격성을 보이는데 20m 이상 신속히 떨어지면 공격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벌에 쏘였을 때는 알레르기 반응인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쓰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어 주고, 얼음주머니 등으로 차갑게 한 후 즉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말벌’의 독은 알칼리성이므로 레몬, 식초 등 산성 물질을 발라

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꿀벌’의 독은 산성이므로 침을 제거한 후 비누 등 알칼리성 물질로 상처를 씻어주면 독을 중화할 수 있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9월까지 벌의 활동이 왕성한 만큼 이 시기에 산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모자를 착용하고, 긴 옷을 입어 사고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1



푸른 가을하늘 속으로 초가를 날새를 보던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다.

## “난폭·보복·음주운전 그만”...경찰, 고위험운전 100일 집중단속

난폭·보복·음주운전 등 고위험운전에 대해 경찰이 100일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다음달 9일부터 100일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2주간은 집중단속에 앞서 홍보·계도 기간이다.

경찰은 난폭운전, 보복운전, 음주운전 등 고위험 운전과 보복운전의 주요

원인인 ‘깜빡이 미점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올해들어 난폭·보복운전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증가한데 더해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따른 결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난폭운전은 전년보다 51%, 보복운전은 16.2% 늘었다.

경찰은 양행운전자·드론 등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경찰서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단속 장소를 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이동하는 ‘스카이동식’ 불시 음주단속도 계획돼 있다.

경찰은 인터넷상에서 과속·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기회 수사를 진행한다. 위험 운전으로 사망·중상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과 동시에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단속과 더불어 위험 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제보)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등 촬영한 동영상 등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 ‘국정농단’ 박근혜 29일 오후 2시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

와 이 부회장에 대한 결론도 이날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전합 선고와 관련해 생중계를 허가할 방침을 정했다. 2017년 8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중계가 허용된다.

## 전남도, 추석 전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

전남도는 여름철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26일부터 30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대대적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을 펼친다.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도와 시·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감독 공무원 등 60여명이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금지구역, 불법 어구 사용, 어린 고기 불법 포획·유통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해상 불법 채묘시설과 특량난무허가 통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전남지역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2015년 397건, 2016년 399건, 2017년 326건, 2018년 305건으로 다소 줄고 있다.

하지만 효과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지도·홍보·지도를 하고, 적발 시 엄격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면세유류 공급 중단, 영여자금 회수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할 방침이다.

### 이슈 판결

#### ‘직원에게 성적 발언·감질’

#### 광주시 공무원 강등 정당

#### 법원 ‘피해자 심적 고통 상당했을 것’

성적인 발언은 물론 직장 내 감질을 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광주시 공무원의 강등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이기리)는 A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4월26일 광주시 내부 행정 포털시스템에는 ‘위계에 의한 정신적 폭력 아웃’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모 부서 중간간부들의 감질로 직원들이 더이상 함께 근무하지 못하고 병가(?)를 내고 출근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같은해 6월27일 A씨가 피해자에게 성희롱과 성차별적 발언, 언어·정신적 폭력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하고 같은부서 금지와 상급자가 업무지휘를 이유로 한 괴롭힘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광주시는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한 것일 뿐 성희롱이나 성차별적 발언이 아니다’ 등의 이유로 성희롱이나 성차별적 발언, 감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 중 1명에게 ‘이쁜지 모르겠다. 여자로 안보인다’고 했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아가씨

때는 늘씬하고 이뻐했는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

다”고 밝혔다.

이러 “이는 피해자 2명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두 피해자의 외모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등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A씨가 다른 직원들은 일찍 출근해 과장님 책상도 닦고 차도 타주더라. 너희는 그 직원보다 못하다”, “여직원들과 일하면 섬세하고 더 꼼꼼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업무상 정당할 이유가 아닌 성별에 대한 구태적인 관념에 기초한 역할 내지 행동의 요구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5분 이상 자리를 못 비우게 하거나 화장실도 15분 안에 다녀오라고 하는 것, 밥만 먹고 자리에 앉으라고 말한 점, 8시 이전 출근 강요, 보건휴가를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쓰지 못하도록 압박한 점 등을 보면 하급자들에게 업무상의 의무를 넘어서는 일을 하도록 압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도 피해자들은 A씨와 근무하는 동안 정신적 스트레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런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데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체조사할 때, 자필치료 중인 민력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 검진
- 암 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해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